

한중 ‘화(火)’의 개념적 은유*

이 선 희**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한국어와의 비교 |
| II. 선행연구의 문제점 | V. 나오는 말 |
| III. 중국어 ‘화’의 개념화 양상 | |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한중 감정표현의 인지적 연구’의 일환으로, ‘기쁨, 슬픔, 두려움’에 이어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중국어 ‘화’의 개념적 은유의 양상을 살펴보고, 우리말과의 대조를 통해 중국어의 의미특성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를 간략히 살펴본 후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보완하여 한국어의 모습과 대조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감정표현의 인지적 연구에서 특히 ‘은유’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은유가 언어 사용에서 상당히 보편적이며 특히 감정 경험에 대한 개념화 양상의 대부분이 은유를 통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는 인지의미론 관점에서 연구된 기본 감정표현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영어, 한국어, 중국어의 ‘화’ 개념을 표현하는 근원영역들에 관해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연구결과 또한 언어의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332-A00137)

**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문학과 교수

실제모습을 많이 밝혀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선행연구가 중국어의 실제 모습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며, 선행연구의 기초 위에 북경대 언어코퍼스¹⁾와 國家語委現代漢語語料庫²⁾, 대만중앙연구원의 現代漢語平衡語料庫³⁾를 통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개념적 양상들을 찾아내어 중국어 ‘화’ 개념화 양상에 대한 기존연구의 부족을 보완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문제점

중국어 ‘화’의 개념적 은유화 양상을 연구한 중국내 연구들은 적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핵심 기간지에 게재된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영어와 중국어를 간단하게 비교한 논문들이 대다수로 모두 대학학보에 게재된 단편적인 연구들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이 중국어에서 ‘화’는 ‘生氣’, ‘火氣’, ‘悶氣’, ‘怒氣’, ‘發脾氣’ 등의 어휘에서 볼 수 있듯이 ‘뜨거운 김(氣)’으로 표현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 가운데 비교적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통계를 낸 연구는 두 가지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 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첫 번째는 17권의 영중 대조도서를 대상으로 ‘화’의 표현을 분석해 통계를 진행한 黃祖江(2002)의 조사인데, 그는 ‘화’의 개념적 은유 중에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뜨거운 김(氣)’이며,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 다음이 ‘發火’, ‘惱火’, ‘怒火’ 등에서 보듯이 ‘불(火)’로 전체의 16.54%를 차지한다. 이어서 ‘신체의 이상 반응’, ‘용기 속의 기체 혹은 액체의 열’, ‘자연력’, ‘위험한 동물’의 순이다. ‘자연력’은 ‘震怒’, ‘大發雷霆’, ‘臉色陰沉’, ‘暴跳如雷’에서 보듯이 ‘날씨’를 주로 가리키며, ‘위험한 동물’은 ‘氣冲鬪牛’,

1)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xiandai

2) www.cncorpus.org

3) <http://db1x.sinica.edu.tw/kiwi/mkiwi/>

‘牛勁兒’에서 보듯이 주로 ‘소’로 개념화된다. 이후 진행된 袁紅梅·楊春紅(2008)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차이점이라면 黃祖江(2002)의 ‘뜨거운 김’과 ‘용기 속의 뜨거운 김’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화로 보아 가장 빈도가 높은 개념은유로 보았는데, 전체의 57.84%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개념화가 ‘불’과 ‘신체의 이상 반응’으로 각각 19.21%과 18.54%를 차지한다. 이 두 연구의 결과를 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어에서 화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⁴⁾

개 념 은 유	출 현 빈 도	
	黃祖江(2002)	袁紅梅·楊春紅(2008)
憤怒是氣	50.59	
憤怒是火	16.54	19.21
憤怒是人體異常表象	16.34	18.54
憤怒是容器中的氣或液體的熱	12.99	57.84
憤怒是自然力	2.56	3.09
憤怒是危險的動物	0.98	1.32

표를 보면 중국인들은 ‘화’를 ‘뜨거운 김(氣)’, ‘불’, ‘신체의 이상표현’, ‘용기속의 기체나 액체의 열’, ‘자연력’, ‘위험한 동물’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학자들은 신체반응을 통해 화를 표현한 것은 개념적 은유로 보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개념적 환유로 보아 논의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그 밖에 최근의 연구로는 曲占祥(2008)과 孫毅·陳朗(2009)이 있다. 曲占祥(2008)은 중국어 ‘화’의 은유화 양상으로 ‘비장(脾)의 반응’ ‘불’, ‘자연력’, ‘안색의 변화’, ‘전신의 떨림’, ‘정신이상’, ‘위험한 동물’ ‘신체의 이상’, ‘일촉즉발의 위험물’의 아홉 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비장의 반응, 안색

4) 표에서 ‘憤怒是氣’은유와 ‘憤怒是容器中的氣或熱’은유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 변화, 전신의 떨림, 정신이상' 등은 모두 신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환유화'에 해당된다. 孫毅·陳朗(2009)은 '화'의 개념적 은유를 '열'로 개괄하였는데, 이를 다시 '불(火)'과 '뜨거운 김(氣)'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단순화로 중국어의 실제 모습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상으로 중국어 '화'의 은유화 양상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중 비교적 전면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소수이며 결과 또한 유사하였다. 그 밖에 연구들도 내용에서 위 결과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중국어에서 '화'는 '불' 외에도 '물, 적, 음식물' 등 다양한 근원영역을 통해 개념화된다. 가령 '心裏涌起了憤怒(마음속에 분노가 솟아났다)'는 '화'를 솟아오르는 '물'로 개념화한 표현이다. 또 '戰勝憤怒(분노와 싸워 이기다)'는 분노를 '적'으로 개념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예들은 코퍼스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중국어에서 '화'가 '불, 김, 자연력, 위험한 동물' 등의 근원영역으로 개념화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밖에 연구들도 대부분 중국어와 영어를 대조한 것들로 소수의 몇몇 개념화 양상만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Ⅲ. 중국어 '화'의 개념화 양상

첫째, '화'는 '뜨거운 김(氣)'으로 개념화된다. 이는 이미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개념화로 중국어에서 '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휘가 '氣'라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자주 보이는 표현들로는 '生氣, 發脾氣, 氣冲冲, 氣呼呼, 氣憤, 氣急敗壞, 氣得發瘋, 氣得發狂, 氣得臉色煞白, 氣得臉色通紅, 氣得臉紅脖子粗, 氣得臉色發青, 氣得臉色鐵青, 氣炸了肺, 氣得七竅生烟' 등이 있다.

둘째, '화'는 '불'이다. 역시 선행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개념화이다. 몇

가지 예를 보면 '發火, 惱火, 怒火, 大動肝火, 火冒三丈, 怒火萬丈, 怒火中燒, 火氣冲天'과 같은 표현들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 (1) a. 憤怒在胸口燃燒。(분노가 가슴 속에서 타고 있다.)
 b. 憤怒的火, 已經燃燒到了最高峰, 我再也不能忍受了。(분노의 불이 이미 꼭대기까지 다다랐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셋째, '화'는 '기후'이다. 앞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화'가 '날씨'로 개념화됨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이를 '기후'로 보기로 한다.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살펴보자.

- (2) a. 你的憤怒像呼號的狂風。(너의 분노는 마치 울부짖는 광풍과 같다.)
 b. 憤怒的暴風雨就要傾盆而下了。(분노의 폭풍우가 곧 퍼부을 것이다.)
 c. 他煩燥的瞪着腳, 暴跳如雷的吼叫着, 呪罵着。(그는 짜증스럽게 발을 굴리면서, 우레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저주를 퍼부었다.)
 d. 他的靈魂將不可避免地籠罩上憤怒的陰沉感情。(그의 영혼은 하는 수 없이 분노의 어두운 감정으로 휩싸일 것이다.)

'화'는 부정적인 감정이므로 주로 흐리고 비바람 부는 기후로 개념화되는데, (2a)의 '呼號的狂風', (2b)의 '暴風雨', (2c) '如雷', (2d) '陰沉感情' 등의 표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화'는 '위험한 동물'이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화' 자체가 아닌 화가 난 모습을 동물로 개념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물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본 '소' 외에도 '사자', '돼지', '벌'등도 보이는데 아래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개념화는 그 예가 그리 많지 않아 보편적인 개념화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가장 낮은 출현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 (3) a. 老呂暴怒得像頭獅子。(분노가 폭발한 老呂는 마치 한 마리 사자와

- 같았다.)
- b. 眉臉惱怒得象豬。(화난 얼굴모습이 마치 돼지 같았다.)
- c. 他也很生氣, 憤怒得像隻蜜蜂。(그는 매우 화가 났다. 화난 모습이 마치 꿀벌 같았다.)
- d. 這個古老的郊區, 擁擠得像個螞蟻窩, 勤勞、勇敢和憤怒得像一窩蜂。
(이 오래된 변두리는 개미굴처럼 붐비며, 부지런하고 용감하며 분노한 모습은 마치 벌집을 쑤서놓은 듯하다.)

이상의 네 가지 개념화는 모두 많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다. 이 외에 중국어에는 ‘화’를 개념화하는 다양한 개념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언급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것들 외에 ‘화’를 개념화하는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화’는 ‘물’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화는 불이다] 은유와 상반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는 은유이다. 하지만 사실 중국어에는 ‘화’를 ‘물’로 개념화하는 예를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다. 다음을 보자.

- (4) a. 同時內心也涌起了憤怒。(동시에 마음 속에서 분노가 솟아올랐다.)
- b. 憤怒與仇恨一起涌上他的心頭。(그의 가슴속에서 분노와 원한이 함께 솟았다.)
- c. 她心中涌起一股怒氣。(그녀의 마음에 한 줄기 분노가 솟았다.)
- d. 這更激起了兩個人的憤怒。(이는 더욱 두 사람의 분노를 일으켰다.)
- e. 那時的天安門廣場真是一片憤怒與悲痛的海洋。(그 때 천안문 광장은 완전히 분노와 슬픔의 바다였다.)
- f. 焦急和憤怒在他們人與人之間泛濫着。(초조와 분노가 그들 사이에서 범람하고 있었다.)
- g. 他說不下去, 憤怒像潮水般將他淹沒。(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가 밀물처럼 그를 침몰시켰다.)
- h. 他的憤怒突然爆發了, 像洶涌的潮水一樣不可遏止。(그의 분노가 순간 폭발했다. 마치 성난 조수처럼 막을 수가 없었다.)

- i. 女工的怒潮把他們冲倒，把他們卷入重圍！(여공들의 분노는 그들을 넘어뜨렸고, 그들을 겹겹의 포위망에 가두었다.)
- j. 同時文中細膩明智的哲理，又往往使讀者無從探悉他內心裏的怒潮狂濤。(동시에 문장 속의 섬세하고 현명한 철리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내면의 용솟음치는 분노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다.)

(4a-d)의 '涌起了, 涌上, 涌起, 激起了'와 같은 서술어는 모두 '화'를 솟구쳐 오르는 '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이다. (4e)의 '憤怒與悲痛的海洋'은 '분노와 비통에 잠긴 사람들'을 뜻하며, (4f) '泛濫着', (4g) '像潮水般', (4h) '怒潮', (4i) '怒潮狂濤'등 역시 '화'를 '바닷물, 강물'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화'는 '물건'이다. 중국어에서 감정을 '물건'으로 개념화하는 예는 이미 '기쁨, 슬픔'의 개념화에서 살펴보았는데, '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5)에서 보듯이, '화'는 축적할 수 있으며(積壓, 積存了), 감추거나(隱藏)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帶着, 帶來了, 拿), 주었다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收回) '사물'로 개념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5) a. 從那一刻起，一直積壓在我心中的憤怒和耻辱便烟消雲散了。(그 순간부터 줄곧 내 마음에 쌓아두었던 분노와 치욕이 안개처럼 사라졌다.)
- b. 因此我的心中積存了很多憤怒和報復的欲望。(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많은 분노와 복수의 욕망이 쌓였다.)
- c. 表面顯得高興，而內心隱藏憤怒和失望。(겉으로는 기뻐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실망을 감추고 있다.)
- d. 老船長一看就板起了臉，聲音並不比平常大，但味道不對頭，帶着很大的火氣。(노선장은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크지 않았지만 느낌은 사뭇 달라서 큰 분노를 띠고 있었다.)
- e. 其實往往是自己給自己帶來了憤怒。(사실 화는 자기 스스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 f. 如今身處逆境，她只能拿憤怒來掩飾她的絕望。(역경에 처한 지금 그

너는 화로써 절망을 감출 수 밖에 없었다.)

- g. 收回您的憤怒吧, 仁慈的上帝! (당신의 분노를 거두소서, 인자하신 주여!)

일곱째, 화는 음식물이다. (6a-e)를 보면, ‘화’는 음식물처럼 삼키고, 목구멍을 막기도 한다. 또 (6f-j)에서는 몸속의 음식물과 같이 토해낼 수도 있는 것으로 개념화됨을 보여준다. 이같은 예는 중국어에서 상당히 많아서 ‘화’의 ‘음식물’ 개념화는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6) a. 張恨水當場就非常憤怒, 咽不下這口氣, 他就逃出去了。(張恨水是 그 자리에서 매우 화가 났으며, 그 화를 삼키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
- b. 這愚蠢的動作之后, 我考慮一會, 不得不承認有必要克制我的驕傲, 咽下我的憤怒, 并且振作起來把東西收拾乾淨。(이 같은 멍청한 행동 후에 나는 생각을 했다. 자신의 오만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분노를 삼키고 힘을 내서 물건들을 깨끗이 정리했다.)
- c. 水山望着他那萎靡不振的樣子, 把咆哮的聲音壓下去, 吞了口唾沫, 咽下沖心而起的怒火, 語氣深沉地說。(水山은 축 늘어진 그의 모습을 보며, 화난 목소리를 억누르고 침을 삼켰다. 마음 속에 끓어오르는 화를 삼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 d. 當我一看到她被纏裹過的傷殘了的脚, 憤怒又被自己吞下去了。(그녀의 묶여서 상처 입은 발을 보고서 나는 분노를 삼켰다.)
- e. 不是不想說明, 也不是沒有話說, 而是憤怒和怨恨, 梗塞住我的喉嚨, 幾乎憋得喘不過氣來。(말하기 싫은 것도,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분노와 원망이 내 목구멍을 막아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 f. 她真想大聲疾呼, 吐吐胸中的悶氣。(그녀는 정말 소리치면서 가슴 속의 울분을 토해내고 싶었다.)
- g. 使勁地咳了一聲, 這才吐出一口怒氣。(그는 힘껏 기침을 해서 분노를 내뿜었다.)
- h. 他們咬着牙, 直瞪着眼, 吐射着無窮的怒火。(그들은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서 끝없는 분노를 뿜아냈다.)

- i. 萊因哈特那端麗的兩唇之間，吐出巨大的怒氣。(萊因哈特的 그 아름다운 두 입술사이로 거대한 분노가 쏟아졌다.)
- j. 終於被搬開了，多年的委屈、苦惱和憤慨化作兩行清淚，酣暢痛快地吐出了壓抑在心底的憤怒。(드디어 벌어졌다. 다년간의 억울함과 고뇌, 분개가 두 줄기 눈물이 되어 흐른다. 마음속에 억누른 분노를 통쾌하고 뱉어 냈다.)

여덟째, 화는 적이다. 중국어에서 ‘공포’가 ‘적’으로 개념화되는 예는 상당히 많은데, ‘화’ 역시 마찬가지다. (7a-h)는 모두 ‘화’를 억누르는 대상으로 개념화한 예로, ‘壓住, 壓倒, 壓抑, 壓制, 強抑’등의 표현이 이를 보여준다. 이는 또 (7i)의 ‘戰勝’이나 (7j)의 ‘襲擊’, (7k)의 ‘包圍了’, (7l)의 ‘占有了’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7) a. 壓不住心頭的怒火。(마음속의 화를 누를 수 없다.)
- b. 他使勁壓住心中的憤怒。(그는 애써 마음속의 분노를 억눌렀다.)
- c. 憤怒壓倒了他。(분노가 그를 압도했다.)
- d. 他壓抑着憤怒，神情嚴肅地問道。(그는 화를 억누르며 엄숙하게 물었다.)
- e. 我顯然在壓制自己的火氣。(분명 나는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 f. 他的心裏充滿了憤怒，他覺得他的身子被壓得不能夠動彈了。(그의 마음속엔 분노로 가득했다. 그의 몸은 분노에 억눌려 꿈잠도 할 수 없음을 느꼈다.)
- g. 我買了一大杯酸梅湯，正好壓一壓你的火氣。(내가 酸梅湯 한 잔을 사왔어요. 당신을 화를 누르기에 좋죠.)
- h. 我強抑怒火，默默地向前跨了幾步。(나는 화를 억누르며 묵묵히 앞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 i. 幫助他們戰勝恐懼。(그가 분노를 이기도록 돕는다.)
- j. 他又渺茫的感到常常襲擊他的那點恐懼。(그는 항상 자기를 공격하는 공포를 또 막연히 느꼈다.)
- k. 憤怒把她渾身上下都包圍了。(분노가 그의 온 몸을 포위했다.)

1. 憤怒就把我占有了。(분노가 나를 점유했다.)

아홉째, 화는 무기·흥기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8a-c)에서 ‘화’를 ‘폭발’ 하기도 하고, (8d-e)에서처럼 ‘칼’이나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 (8) a. 老人的聲音又弱又尖, 象憤怒在爆裂。(노인의 목소리는 약하고 가늘어서 마치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다.)
 b. 這起暴力衝突的發生, 是美國長期以來種族歧視、種族主義所凝聚起來的怒火的一次爆發。(이번 무력충돌은 미국의 종족차별, 종족주의가 장기간 응집된 분노의 폭발이다.)
 c. 但可以想像他一旦發怒起來, 那種爆炸性的力量會激發起旋天轉地的能源風暴。(하지만 그가 일단 화를 냈다 하면 그 폭발적인 힘이 하늘과 땅을 뒤흔들 에너지폭풍을 불러일으키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d. 我知道我已煽起了鋼刀一般的憤怒。我心裏痛苦不堪。(나는 자신이 칼과 같은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마음은 몹시 고통스러웠다.)
 e. 他感到有千萬雙群眾的眼睛憤怒地盯着他, 像萬箭穿身。(그는 천만쌍이나 되는 대중의 분노에 찬 눈이 마치 수많은 화살이 그를 관통하듯 자기를 주시하고 있음을 느꼈다.)

열 번째, 화는 글씨다. 중국어에서 감정이 ‘글씨’로 개념화되는 예는 ‘슬픔’이나 ‘기쁨’의 개념화에서 살펴보았다. ‘화’를 글씨로 개념화하는 예는 ‘얼굴’에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 (9) a. 他的憤怒都寫在臉上。(그의 분노는 모두 얼굴에 쓰여 있었다.)
 b. 雖然艾拉克的臉上寫着憤怒, 但是同時也寫上了恐懼。(艾拉克의 얼굴에 화가 쓰여 있지만, 동시에 공포도 함께 쓰여 있다.)
 c. 現雜沓而且沉重的步履聲, 在光滑的水門汀上響着, 憤怒和惶惑, 寫在每個人的臉上。(요란하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매끄러운 콘크리트 위에서 울리고 있었다. 분노와 당혹감이 모든 사람의 얼굴에 쓰여

있었다.)

(9a-c)의 '憤怒都寫在臉上', '臉上寫着憤怒', '憤怒和惶惑, 寫在每個人的臉上'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씨' 개념화는 매우 제한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 한 번째, 화는 실이다. 중국어에서 '화'를 '실'로 개념화하는 예도 극히 제한적인데, (10)의 '恐懼和憤怒交織', '一絲憤怒'에서 보듯이 감정을 직물처럼 짤 수 있거나 '실'을 사용해 셀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예가 대부분이다.

- (10) a. 當他接觸到對方的恐懼和憤怒交織的目光時, 他停住了腳步。(상대방의 공포와 분노가 함께 뒤섞인 눈빛을 보았을 때,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b. 他甚至連一絲憤怒都沒有表示。(그는 심지어 한 가닥의 분노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으로 중국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화'의 개념화양상들을 11가지 근원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앞의 네 가지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화이다. 즉 중국어 '화'는 '뜨거운 김, 불, 기후, 위험한 동물'처럼 잘 알려진 근원영역 외에도, '물, 물건, 음식물, 적, 무기·흉기, 글씨, 실'과 같은 다양한 근원영역으로 개념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한국어 '화'의 개념화양상은 어떨까? 다음 장에서는 두 언어에서 '화'의 개념화 양상을 대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V. 한국어와의 비교

임지룡(2006:70-80)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화'의 은유적 양상은 '그릇

속의 액체, 적, 물건, 식물, 음식물, 강물·바닷물, 폭풍우, 불, 무기·흉기, 끈 실'의 11가지 근원영역으로 개념화된다. 이 중 '그릇 속의 액체, 적, 불' 등은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개념화이다. 한국어에서도 '화'는 물처럼 고이거나 차오르기도 하고, 뜨거운 물처럼 부글거리고 치솟아 오르기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적'과 싸워 누르듯이 '화'를 참는 것은 누르는 것이며, 이기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한다. 또 화는 '불'로도 표현되는데 '열화', '천불', '열불' 등과 같은 언어표현들은 모두 이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근원영역	은유 표현
그릇 속의 액체	가슴에 분노가 고이다, 얼굴에 노기가 서리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다, 화가 부글거리다, 화가 치밀다, 화가 머리끝/머리꼭지까지 치솟다.
적	화를 누르다. (울)화를 억누르다. 분노를 누르기 어렵다, 분노가 꿈틀거리다, 분노가 고개를 들고 일어서다, 분을 못 이기다, 분노에 사로잡히다.
물건	노여움을 사다, 분노를 보태다, 노여움을 더하다, 분노를 간직하다, 화를 건잡지 못하다, 노여움을 거두다.
식물	분노의 뿌리가 깊다, 화가 돋다, 화가 돋아나다, 화가 돋아 오르다, 분노를 키우다.
음식물	성을 머금다, 분노를 삼키다, 화를 내뿜다, 울화를 토해내다.
강물·바닷물	분노의 파도, 분노가 파도로 일어나, 성난 파도처럼, 노여움이 일다, 분노로 소용돌이치다.
폭풍우	노여움이 빗발치다, 분노가 온몸을 휩싸다. 분노에 휩싸이다.
불	간에 천불이 나다, 가슴에서 타는 분노의 불길, 가슴에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다, 역정이 열화같이 나다, 분노가 사그라들다.
무기·흉기	분노를 숫돌에 갈다
끈	화를 풀다, 화가 풀리다, 분노가 풀어지다.
실	분노를 자아내다.

앞에서 살펴본 중국어와 비교해보면 두 언어에서 '화'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개념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은유표현을 대조하여 보면 유사성과 차이를 정리해볼 수 있다. 한국어의 '그릇 속의 액체'와 '강물·바닷물'은 본고에서 살펴본 중국어 '물'의 근원영역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임지룡(2006)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하나의 근원영역으로 보았다. 또 한국어 '불'에 해당하는 근원영역은 중국어에서 '뜨거운 김'과 '불'로 이들은 유사한 근원영역으로 볼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어는 '뜨거운 김'보다는 '불'로 개념화하는 예가 보편적인데 비해, 중국어는 '화'가 '불'외에도 이와 밀접한 '뜨거운 김'으로 개념화되는 은유표현이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어에도 '머리에서 김난다, 스팀이 나온다, 뚜껑 열린다'와 같이 '화'를 '뜨거운 김'으로 개념화하는 재밌는 예들을 찾을 수 있다. '뚜껑 열린다'는 화가 나서 머리에서 김이 나는 모습을 '불 위의 주전자'가 열을 받아 '뚜껑'이 열리는 것으로 개념화한 표현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이들은 주로 '머리'라는 신체부위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김'과 관련한 표현으로 국한된다. 원인을 생각해보면 아마 중국어에서는 '화' 자체가 '김(氣)'과 '불(火)' 모두로 표현되지만 한국어에서는 '김(氣)'이 아닌 '불(火)'과 '열(熱)'로 표현되므로 '뜨거운 김'으로 개념화한 은유표현이 중국어만큼 보편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한국어의 '폭풍우' 역시 본고에서 살펴본 '기후'와 유사한 근원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두 언어 모두에서 '화'는 '비바람, 광풍, 우레'와 같은 '폭풍우'의 기후로 개념화된다. '적, 물건, 음식물'등의 근원영역은 두 언어에서 모두 그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무기·흉기'나 '실'의 경우 두 언어 모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무기·흉기'는 주로 '칼'로 개념화된다. 또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실'과 '끈'을 하나의 개념화로 보기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화'의 개념화양상은 '물(강물·바닷물), 적, 불·열·뜨거운 김, 물건, 음식물, 기후(폭풍우), 무기·흉기, 실·끈'의 8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반면 두 언어

에서 상이한 개념화양상을 보이는 근원영역으로는 한국어에만 보이는 ‘식물’이 있고, 중국어에만 보이는 ‘글씨’와 ‘위험한 동물’이 있다. 이를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원영역	한국어	중국어
물(강물·바닷물)	○	○
적	○	○
불·열·뜨거운 김	○	○
물건	○	○
음식물	○	○
기후(폭풍우)	○	○
무기·흉기	○	○
실·끈	○	○
식물	○	
글씨		○
위험한 동물		○

V.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인지언어학의 개념은유의 관점에서 현대중국어 ‘화’의 개념화양상에 대해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수정보완하고 한국어와 대조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어 ‘화’의 개념은유로 ‘뜨거운 김, 불, 기후, 위험한 동물’을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중국어의 실제 모습을 반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중국어는 이 밖에도 ‘물, 물건, 음식물, 적, 무기·흉기, 글씨, 실’과 같은 다양한 근원영역으로 개념화되고 있음이 본고의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둘째, ‘화’의 개념화는 한중 두 언어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

는데, 구체적으로 '물(강물·바닷물), 적, 불(열, 뜨거운 김), 물건, 음식물, 기후(폭풍우), 무기·흥기, 실·끈'의 8가지 공통된 근원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차이점은 '식물'은 한국어에서 나타나고, '글씨'와 '위험한 동물'은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근원영역으로 밝혀졌다.

셋째, '화'에 대한 언어표현이 한중 두 언어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기본감정자체가 인류 보편적이어서 이를 언어화한 표현 역시 언어에 따라 자의적이지 않고, 신체의 일상체험과 긴밀히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 參考文獻 >

- 黃祖江, <談漢語表示“憤怒”的概念隱喻>, 《西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6期 2002.
- 袁紅梅·楊春紅, <英漢語中“憤怒”隱喻的認知對比與文化闡釋>, 《北京第二外國語學院學報》 第2期 2008.
- 曲占祥(2008), <漢英“憤怒”情感隱喻認知的異同>, 《廣東外語外貿大學學報》 第6期 2008.
- 孫毅·陳朗(2009), <“憤怒”情感隱喻視閥中的體驗哲學管窺>, 《雲南師範大學學報》 第5期 2008.
- 임지룡, 《말하는 몸-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한국문화사), 2006.

< 中文提要 >

情感隱喻是通過一系列概念隱喻得到理解的, 近幾年來許多學者結合認知語言學的觀點, 陸續發發表了利用英漢語料對比研究情感隱喻的文章, 他們的研究都具有值得借鑒之處。關於人類基本情感“憤怒”, 也有很多中國的

學者做了研究，但本文發現還有不少可以補充的不足之處。因此本文在前人研究的基礎上把“憤怒”的表達作為研究對象，對韓、漢語中的相關語料做進一步的收集、歸納和分析，力圖找出韓中兩種語言中“憤怒”隱喻共性和個性，從而幫助人們進一步了解漢語和中國文化的實質。

韓中‘憤怒’表現具有許多相同的隱喻機制，但同時每個隱喻背後的經驗也會有所差異。在隱喻方面，本文通過調查、對比后發現兩種語言都具有[憤怒是液體(河水·海水)]、[喜悅是敵人]、[喜悅是火(熱，灼熱氣體)]、[喜悅是物質]、[喜悅是食品]、[喜悅是氣候(暴風雨)]、[喜悅是武器·凶器]、[喜悅是絲·繩子]等八個隱喻框架。此外，漢語具有[喜悅是文字]、[喜悅是危險的動物]的隱喻，而韓語則具有[喜悅是植物]的隱喻。

주제어 : 基本情感, 憤怒, 概念隱喻, 概念化, 認知